‘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 믿기

(아가 3:1~11)

6.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9.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11.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 믿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 믿기

솔로몬 왕이 보낸 가마를 타고 술람미 여인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광경이 펼쳐지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리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측면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예수님을 믿고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도 믿어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승리의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믿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솔로몬 왕의 가마가 나타납니다. 또 예루살렘 왕궁의 여인들에게 물어서 시집오는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

두 준비하여 가마에 싣게 하였습니다. 이 가마를 예루살렘에서 80km쯤 떨어져있는 수넴(술람미)이라는 궁벽한 시골로 보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에게조차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포도원 지기나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골 처녀에게 온갖 보화로 장식된 가마가 보내졌던 것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이 가마를 타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옛날에 광야를 지나오는 도중에 도적이나 맹수들의 습격이 있을 수 있었기에 육십 명이나 되는 왕의 친위대를 보내어 술람미 여인을 호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운반할 수 있는 향로에 값비싼 향을 피웠습니다. 이 향기가 뜻하는 바는 제대로 가꾸지 못한 시골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솔로몬 왕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값비싸고 귀한 향기를 맡으면서 왕에게 큰 기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쁨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연합을 위한 결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결혼을 원하셔서 가마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부부가 되기 위해서 최고급의 가마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전전하던 시궁창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 부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혼에서 평강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가마를 보내셔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해야 할 일은 솔로몬 왕이 보낸 가마에 올라타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갈 필요도 없고 걸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낸 가마를 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묶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마를 타기만 하면 이 가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마치 남편이신 것처럼 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부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만 그 관계는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는 직접적

표현이 아닌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의 깊음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아름다운 꽃가마를 보냈으니 올라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태워가는 꽃가마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죽으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향 친척 친정집으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려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등 돌리고 죽는 사건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집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친정집에서는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으로부터만 기쁨을 찾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을 올라타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꽃가마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아버지께로 향하십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매 순간 지금 나의 신앙사건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마타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꽃가마를 타기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아무 여인에게나 꽃가마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결혼식의 가마행렬의 묘사 전에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보았습니다. 이 꿈은 솔로몬을 잃어버려서 온 거리를 찾아 헤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꿈을 꾼 이유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고 컸기에 꿈에서조차 솔로몬을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야 꽃가마를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타고 갈 꽃가마가 되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을 떠나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잃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좋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땅을 벗어나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상황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아닌 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고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이라

는 꽃가마를 올라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면 꽃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보다 친정집을 더 좋아했다면 가마를 보낸들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잃을까 두렵고 돈을 못 벌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헛되게 부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하늘로 가는 꽃가마입니다. 다만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돈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꽃가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려하는 것은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으며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백 날, 천 날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게 될 가능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보장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절대 이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이고 돈이고 자녀의 형통입니다. 젊은이들은 애인이 떠날까 두려워하고 취직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성경공부를 할지라도, 실제로 마음이 하늘로 가는 꽃가마이신 예수님께 올라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절대 평강도 없고 항상 기쁨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저주받음의 증상은 하나님을 잃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결혼을 약속받았음에도 솔로몬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꿈속에서조차 솔로몬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 대상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두렵고 건강하지 못해서 두렵고, 혹은 형통하지 못해서 남에게 창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시면서 떠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나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공회에서 매 맞을 때의 장면, 또한 초대교회 시

대에 폴리캅의 순교 장면 등을 보면 오히려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 기독교가 형성되고 난 뒤의 모든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상태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셨던 것일까요?

순교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것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 간 것입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꽃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을 만나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자 몸은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공생애 기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에게 합당한 자리입니다. 곧 인간의 자리입니다. 이 저주받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저주받은 우리를 태우는 꽃가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를 태우시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는 꽃가마가 궁벽한 시골 술람미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태우기 위한 꽃가마가 되시기 위해 저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자리에 서시기 위하여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게 되는 상태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역시 돈 없는 것이 두렵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두렵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 없고 직장 없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리지 못할까 두려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들만을 골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꽃가마를 타고 하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때에만 예수님의 꽃가마를 탈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꽃가마를 타기 직전에 굳이 꿈에서 솔로몬을 잃고 찾아 헤매던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의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 정도로 저주에 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상태를 저주로 느끼지 못할 만큼 이미 저주에 찌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두려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잃는 것을 땀이 피가 되도록 두려워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하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서 돈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건강이 상해서 죽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두려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두려움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잃은 내가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친지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지셨던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두려운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두려움을 나의 두려움으로 믿을 때에 십자가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에서 놓친 채 세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두려움을 믿을 때에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잃은 나를 죽인다면, 솔로몬이 보낸 꽃가마에 술람미 여인이 올라탄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꽃가마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더라도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껴야 할 두려움까지 대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꽃가마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일 매 순간 올라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말은 날마다 꽃가마를 올라탄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휩쌌던 두려움을 나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올라탄 예수님이 나의 꽃가마가 되셔서 나의 마음은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신 하나님과 결혼하고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